

“인프라 구축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파”

●임양선(상상오)대표

2017년 사회적 기업 인증...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10년째 아동 후원도...“사회문제 해결·가치 실현 주력”

“농어촌 등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소재한 ㈜상상오의 임양선(47·사진) 대표는 9일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과 함께 사업을 확장해나가고자 사회적 기업을 추진했다”며 “재능이 넘치는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상오는 디자인·인쇄업, 도시재생, 공연 기획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법인 전환 후 2017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상상오는 지난해 해남 등 어촌마을을 살리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전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

업으로, 상상오는 앵커(anchor)조직으로서 마을에 상주하며 사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핵심 민간조직으로 선정됐다.

임 대표는 “국가 경쟁력은 살기 좋은 지방 도시에서 오고,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색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 중 하나”라며 “지역민과 공감대 및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양 자원을 활용한 사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먹거리 사업 등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상오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해 ▲생활SOC 개선 ▲마을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지역 특성을 살린 먹거리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 대표는 마을 공동 수익사업 일부를 자



생조직을 위한 복지·지원비로 비축, 혼자 살거나 정보의 부재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마을 연금화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상상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부 및 물품 후원과 재능기부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와 연을 맺고 현재까지 총 70여만원의 기부금과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2022년부터 남구 방림동 성요셉의 집에 정기 후원을 해 현재까지 약 27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임 대표는 “세쌍둥이의 아빠가 된 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저절로 눈이 갔다”며 “이들의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고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임 대표는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임 대표는 “단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통한 가치 실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익사업의 결실을 보고 싶다”며 “먼저 웃는 얼굴은 없다”는 말처럼 내가 먼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현될 것이라 믿으며 남은 한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성학기자

서준원 조선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지침’ 개발



서준원(사진) 조선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료지침’에 제1저자로 참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9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대한감염학회와 협력을 통해 최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 및 징후가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지침에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에 전신스테로이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후각장애 개선에는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이 효과가 있다는 등의 개별 증상에 대한 평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대한감염학회 정회원인 서준원 교수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지침 마련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기뻐다”며 “앞으로도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감염학 연구에도 매진해 감염병 연구 활성화에 기여해 나갔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광주공항-광주관광공사 ‘지역 관광 활성화’ 협약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은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관광공사와 ‘광주 관광 및 항공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 관광자원 및 광주공항(항공교통) 공동 홍보를 통한 관광객 및 광주·전남 항공교통 이용객 증대 ▲광주·전남 관광자원 활용 여행상품 개발 협력 및 합동 프로모션 ▲관광 및 항공분야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 주요 골자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기반으로 광주를 흡수하는 K리그 광주FC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경기 직관상품 개발·판매 공동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수 광주공항 공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항공·관광분야의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 협력해 나갈으로써 우리 지역 항공과 관광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정기자



광주대,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단 발대식

광주대학교는 9일 “전남 교내 행정관 3층 스타트업룸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단 발대식을 갖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광주대는 발대식에서 노선식 총괄 단장을 비롯해 17명의 교직원들로 구성된 TF팀(대학 비전 및 체계, 인재 SKILL UP, 기업 VALUE UP, 지역사회 GROW UP, 대학 RISE UP, 성과관리 예산)을 꾸리고, 대학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RISE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송윤태 광주시 교육정책관실 RISE 준비단 선

임사무관은 광주대 구성원들에게 RISE 계획서 변경(안) 설명을 통해 광주시의 투자 환경 및 지역특화산업 등 여건을 비롯해 ▲RISE 기본 계획과 추진방향, 비전 ▲4UP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항후 일정 및 대학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김동진 총장은 “광주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가정신 대학’을 모토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 조직 구성원의 성장과 성공은 물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광주대가 이음값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이기자



담양교육지원청 “올해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일반직 공무원 및 교무행정사를 대상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첫 모임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모임은 현경희 행정지원과장, 송병수 장학조교 행정실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반부패 청렴교육과 분야별 향후 운영 계획·방향 논의가 이뤄졌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일반직 공무원과 교무행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참여와 소통의 장을 통

한 관내 교직원 간 유대감 형성·사기 진작을 위해 직렬 구분 없이 매년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경애 담양교육장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자기계발 및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기자

광주시교육청 ‘AI광주미래교육 정책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이 AI광주미래교육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전날부터 이틀간 광주시청의용합교육원에서 각급 학교 교감과 교원, 교육전문직 500여명을 대상으로 ‘상상을 현실로, AI광주미래교육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AI광주미래교육 주요 정책과 AI·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방향성 등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특강으로 이뤄졌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인재를 기르는 광주교육을 펼칠 것”이라며 “앞



으로 광주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조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이기자

여수해경, 양귀비·대마 등 재배 집중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전후 기간에 맞춰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죠행위에 대해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양귀비와 대마 경작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30일까지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촌마을 또는 야



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기자

HDC현산, 5·18역사공원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9일 “전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5·18역사공원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HDC현산 A1추진단 10여명이 참여했으며 5·18역사공원 입구 진입로 양쪽에 애기동백, 은목서 등 총 22그루를 심었다.

HDC현산 관계자는 “식목일 즈음 환경을 개선하는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